

번호: PO-EP-048					
제 목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받은 난청 환아에서 수술시기에 따른 주관적 청력상태와 수술 만족도 조사				
저 자 및 소 속	박수잔1), 김현정1), 이동열2), 최병윤3), 오승하4), 조성일1)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교실, 2)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 3)국립의료원 이비인후과,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신생아 난청은 약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여, 국가차원의 조기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타 질환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도 신생아 난청의 조기 선별검사와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생아 청력 검사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받은 난청 환아에서 수술시기별 청력상태와 수술 만족도를 조사하였다.</p> <p><b>방법:</b> 199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받은 400명 환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2005년 8월 전화설문을 시도하였고, 이 중 설문에 응답한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는 난청 발견시기, 진단 시기, 청력장애와 관련된 위험요인, 수술 후 재활치료 상황과 보호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5점 척도의 환아 청력상태, 언어능력, 이식수술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고, 주관적 청력상태, 언어능력, 이식 수술 만족도와 인공와우이식 수술 시기를 유의수준 5%의 범위에서 일원 분산분석하였다.</p> <p><b>결과:</b> 난청 환아의 성별은 남녀 각각 99명, 평균연령은 7.69세이다. 난청 발견 시기는 평균 17.9개월이나 진단 시기는 평균 20.8개월로 난청 발견과 병원 방문까지 평균 3개월가량 지연되었다. 난청 진단 후 수술까지의 시기는 평균 37.9개월, 수술 전 보청기 착용 기간은 평균 29.4개월이고, 수술 시기는 평균 59.4개월이었다. 보호자가 평가한 환아의 주관적인 청력상태는 5점 만점 중 3.5점, 언어능력은 2.8점, 수술의 만족도는 3.9점으로 조사되었다. 환아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로 분류하여(유치원 포함) 주관적인 청력상태, 언어능력과 T-검정한 결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환아의 평균이 일반학교에 비해 청력상태(<math>p=0.01</math>)와 언어능력(<math>p=0.001</math>)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보호자가 평가한 주관적인 청력, 언어능력이 환아의 객관적 현재 상태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된다. 주관적인 청력상태, 언어능력, 이식 만족도는 성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환아의 현재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연령과 수술시기가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며 (<math>r=0.9</math>, <math>p&lt;0.0001</math>) 현재 연령보다는 수술시기가 청력과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술시기를 주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시기를 3세, 3-6세, 6세이상 그룹으로 범주화하여 주관적인 청력상태, 언어능력, 이식만족도와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술 시기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인 청력, 언어능력, 이식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 주관적인 청력상태와 이식만족도(<math>p=0.02</math>)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 <p><b>고찰:</b> 이 연구의 결과는 선천성 난청 환아가 3세 이전에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한 경우, 그 이후 수술보다 주관적인 청력상태와 이식만족도가 증가하여 수술결과가 향상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 환아의 경우 난청 발견 후 진단까지 다소 시기가 지연되었고, 진단 이후에도 수술까지 상당한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신생아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조기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